



發行所
福音新聞社
東京都千代田區
神田區横町2-4
電話 東京182538
神田25253番
電報掛號 九榮
支店 東京 神田 池袋 大塚 有明 目黒 三軒 五軒 目黒 三軒 五軒 目黒 三軒 五軒

聖句
근심하는 자 같으나
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
요하게 하고 아모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政治會議를 앞두고 國連臨時總會展望

○으로 그동안 各國間の活潑한
予備會議가 열리게 되었는것이
다.
○開會場所에 대하여는 八國
스의(제네바)나 세일론같은
中立性平和의 분위가 있는
이 될것이오 다음에會議의
議題에 대해서는 休戰協定 第
六十條의(外國軍隊의 韓國撤退
韓國問題의 平和的解決과 其他
諸論點에 對한(其他)의
條項의 의미가 막연하기
문에 지금까지 이들(韓國問題
에 直接關係있는 其他問題)과
狹義로 해석하는 美國측과 韓
國問題에 關聯된 中共의
國連加入問題 台灣歸屬問題 仁
道지나의 戰亂對峙도 포함할것
이라는 廣義의 해석이 對立되
어있다. 따라서 美國이 지금까
지 極東平和를 위하여 中共의
國連加入을 주장한 英國의 태
도에 대하여 絕對反對의 立場
을 취했고 또 인도의 參加에
대해서도(韓國에 參戰한 各國
代表단 出席할것이오 中立의 立
場을 取한 나라는 出席할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여왔다 美國에

社說

北韓의 肅清과 基督教人

최근 김일성政府가 시행하는
肅清工作은 얼마전 조선
비밀경찰의 首領者 베리야가
당한 其方式을 따르고 있는것
이다. 남지 獨裁者라고하는것은
그 어떤것을 몰래하고 언제나
그 어떤것을 몰래하고 언제나
공산주의자들은 그들이 肅清
하려는 사람에게 대해서는 언
제든지 그만한 罪狀을 꾸미
는것이다. 그들이 흔히 이(軍
工作)에 대해서 이러한 肅清
工作이 如何로 있을수밖에 없
기 때문이다. 이들 肅清을 당하
는 사람들의 罪狀은 共產政權
을 전복하기위해서 軍國主義者
라고 宣傳하고 있다는것이
다. 그러나 여기에서軍國主
義者라고 하는것은 언제

효과가있다. 둘째로 이것은 鐵
의 장막안에있는 모든 사람들
로하여금 民主主義陣營이 그대
들을 侵略하려고 陰謀나 하고
있는듯이 느끼게한다. 그리고
셋째로는 民主陣營의 어떠한
기관으로 드러나도 연락을
하는 사람에게는 極刑을 科한
다는것을 民主主義國家들에게
경고하여주는것이다.
北韓에 있어서 조선의 壓
力이 앞으로 더욱 증가되고
北韓이 조선의 附屬을
조금 더 독하게 걸어가도록
要請되었는 分明한 사실이다.
全韓國을 公산정권下에 통일
하려는 그 본래의 계획이 실
현된 오늘날에 있어서는 조선은
이제 다른 어떤方法을 써서라
도 지금까지 가지고있는 其地
만을 유지해보려고 할것이다.
최근 마르크스주의는(民主主義的인
方式을 통해서 이 목적을 달
고 平和를 사랑하는 정권아래
온 韓國을 통일하는것이아말로
조선이 바라는것이다.)라고
성명하였다 이것은 물론 공산
정권을 말한것이다. 그들은 공
산정권밖에는 아모政權도 이
를 平和的 爲는 民主主義的인
라고 인정하지않기 때문이다.
최근 조선과 北韓에서 보이
는 動向은 國連과 美國이
지금 통일, 독립, 자유 그리고
民主主義 韓國을 수립하려고
애쓰고있는 그 일을 더욱더
어렵게 만들고있다. 그러나 韓
國에 있어서의 이 한가지 韓
半島에 있는 모든 자유국가들이 언제
모든 자유국가들이 언제
모든 자유국가들이 언제
모든 자유국가들이 언제



黃聖秀氏

反共捕虜釋放은하나님의뜻 非公式韓國代表黃聖秀氏演說

○ 信者들로
남다. 滿員을 이루어 大盛況
을 이루었다. 남다. 「國際青
年會」그리스도에게(福音)에
대한 熱心을 나타내어
이(基督)를 世界各國에서 모
인 基督敎徒의 聖火에 燃
는 熱의 融合과 昇進한 會
衆에게 많은 感激을 주었다.
第六日(即) 지난八月十四日
午前十二時에는 이(會) 演說中에

적어도 國連속의 三大國이 政
治會議의 議題를 韓國統一問題
의 解決에만 限하리라는것은
확실하다.
그러나 問題는 위에서 말한
바 參加國選擇問題인데 英國측
과 美國측면과 對立이 될 염
려가濃厚하고 결국 이 대립
은 政治會議로 넘어갈것이라하
나 이미 美國측은 韓美共同聲
明에서 政治會議가 三個月內에
成功하지못하면 韓美雙方은 政
治會議를 延擱하리라고 宣明한
바도 있었으니 美國측의 태도는
변함이 없을것이다.

人事

下榮泰氏(外務長官) 지난 八月三日 U 總會出席次 渡美途中 하네다着

○朴예스더氏(大韓 Y W C A 聯合會顧問總務) 同會事務연락次 日 八月十四日來日

○明信弘牧師(長老會總會長) 和蘭에 長老會世界大會出席次 十三日하네다着

○黃聖秀氏(同上)



타향에 서고인 을 만나 면 반갑 고, 친근 스러운것 은 사람 의 인정

인데 웬 일인지 일본에있는 우리들모끼리는 (황경이들이 쉬어서 그런지 모르거니와) 그렇게 쓸쓸하고 따뜻한 맛이 없고 합하지 못하는지!

민단주최로 八一五광복기념과 건국기념 민족대회를 중추에서 열었는데 아모리 비가 온다고 해도 사람도 화계 모였고 또 당지에 있는 각 교포단체 대표자들이 나오지않고 발발나 오는 그 사람들만 모이는것은 섭섭한 일이다 그리고 이것은 어느편의 책임인지 모르거니와 교회의 지도자들이 나오지않는 것은 유감이다 교인도 한 국민인 이상 또 우리 정세가 이러니만큼 더욱 행동을 같이 해야할터인데 그렇지 못한것은 큰 유감이다.



明 信 弘 牧 師

世界長老會代表出發

明信弘牧師黃聖秀氏出席

和蘭에 그에서 오는 八月十九日부터 열리는 世界長老教會大會에 韓國長老教會 代表로 大韓예수교長老會 總會長 明信弘목사와 國會議員으로 長老會全國勉育會會長이오全國基督學生會指導者이신 黃聖秀氏가 出席하기되어 渡歐하는 길에 지난 八月十一日 羽田空港에 내려서 羽田동안 목계 되었는데 兩氏는 마친 當地에서 열리는 世界傳道會議에 非公式으로 出席하였고 마침 右記大會에 出席 하려고 東京에 모인 韓國教會 牧役者들과 만나서 간담할機會가 있었다.

박사는 대통령을 만나서 인사 뒤에 먼저 말하기를 「반공포로를 석방해서 고맙습니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신 대통령께서 대답하시기를 「모두 당신은 어찌하여 그렇게 말씀하시오」 하신즉, 박사께서 「나는 확실히 믿기는 반공포로를 석방하신것은 하나님의 뜻인줄 압니다」 「고맙소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뜻인줄 알고 있었소」 「응습니다」 알면서도 각하께서는 하나님의 뜻인줄 믿는 것은 주저없이 단행하시시오 하신다는 뜻을 행할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도아주시겠립니까」 「고맙소」

그래서 두분은 곧은 악수를 하시고 대통령께서는 한국과 세계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을 믿을 행하시기로, 박사께서 한국사람들이 어서 다 하나님앞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 행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고 헤어지셨다.

문제는 세계인류가 하나님앞으로 돌아오는데 있고 한거름 나아가서 그 뜻을 순종하는데 있다 우리는 이 목적을 위한 거룩한 사명에 우리 모든것을 바치고 세계크리스찬이 한명어리가 되어야되겠다 이번에는 귀대회와 전도집회에 큰 성과와 성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당지에 머물게된 黃聖秀氏의 一場간증연설이 있어서 會衆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다.

먼저 黃氏와 이미 인연이 깊은 普·피어스博士가 씨를 소개하기를 「지금으로부터 四十年前에 韓國서울에서 내가 전도회를 할때에 이 黃형제의 열있는 통역으로 많은 영광을 하나님께 들었는데 오늘날 이자리에 내가 이 형제를 소개하게 된것은 이상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내가 믿기는 이 黃형제는 韓國에서 가장 忠誠된 주의 종인 크리스찬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하였고 黃씨는 요지다음과 같은 간증연설을 하였다.

이번에 불행이 귀대회에 한국대표가 정식으로 참석지못하게 된것은 매우 유감이다 그러나 본인이 마침 해그에 가는 길에 비공식이나 참석하게되고 더구나 경애하는 「普 피어스博士」의 소개로 한마디의 인사의 말씀을 겸하여 소감과 간증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릴 기회를 얻게되것을 감시한다.

지난번에 普 피어스博士가 한국을 방문하셨을때에 마침 내가 대통령을 뵈올게되었는데 마침 박사가 우리대통령을 면회하시기를 원하시기에 직접 대통령께 말씀을 면회하게 되었다 그리고 나도 그자리에 참석하였다.

光復八週年建國五週年 記念慶祝民衆大會

八月十五日 光復節을 마치하야 民團傘下團體를 중심으로 各界人士들이 午前十一時부터 民團中總大講堂에 모여 성대히 거행되었다.

먼저 民團團長 金光男氏의 개회사가 있은다음 李大統領의 號令지를 金容植公使가 낭독한후 계속하여 公使의 祝사가 있었고 이어서 李大統領에게 보내는 賀電을 讀의문을 讀해하였다. 大韓民國萬歲三唱을 하여 午後二時경에 회회하였

약소민족의 비통과 몸부림 처도 어찌할수없는 운명의 기로에서 헤매고있는 민족의 부르짖음은 各演士들의 異口同聲이었다.

金光男氏는 힘있는 어조로 요지다음과같이 演說하였다.

우리는 해방되어 독립 한지 이미八年間이나되었으나 多難한 국제환경에 휩쓸리어 완전통일을 보지못한채 휴전을 하게되었으나 만일 오늘 정치회의에서 완전통일을 달성치못한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바쳐온

在日大韓基督教自立傳道

基金募集運動展開

일본에 있는 우리한국인교회
는 지금으로부터 四十五年전에
시작된 것이며 카나다장로교
교부가 선교를 시작함도 二十



在日本韓國人教役者간담회

自立傳道基金募集趣旨書

人類의 最大幸福、人間의 生命을
左右하는 宗教運動의 必要性은
再論할餘地도 없거니와 어느社
會 어느國家 어느家庭 어느個
人을 돌론하고 참된宗教를 信
奉함과 同한데 따라 興亡이
決定된것도 否認할수없는 사실
이며 古今을 통하여 人類歷史
는 確實히 證明하고있다는것을
다시 力說하는同時 우리들은
在日교포에게 아니 全世界人類
에게 이福音을 生命의길 구원
의길인 예수그리스도의宗教를
로만 전도하지못할것을 하나

五주년을 지났으나 소우 대동
아전정으로 교회가 여지없이
손해를 받아 해방후 물어진
교회당을 새로 건축하고 흐터
진 교인을 새로찾아 교세는
날로 확장하게 되었다 그런데
거년부터 선교이십오주년을 가
념하여 한층더 전도에 매진하
는바 금년에는 총회임원회에서
다음과같은 취지아래 자립전도
기금二百萬圓을 모진하기로 결
정하고 오는 九회총회에서 정
식승인을 받은후에 실시하리라
고하는데 내외교인의 적극협력
을 바란다고 한다.

民族의希望은教會에

明信弘牧師黃聖秀氏同席

在日韓人教役者懇談會

영신종목사와 황성수선생 양
씨와 이번 화관 해그에서
모이는 세계장로교회대회에 출
석차로 유람으로 가는길에 당
지에 몇날 머물게되고 또 마
침 재일한인각교회의 교역자를
이「세계전도회의」에 참석키
위하여 동경에 모인 좋은 기
회를 이용하여 간담회를 열게
된바 문저 지난十三日(목요일)
오후六시에「테이트」호텔에 모
이게 되었는데 영신종목사는
사정상 참석하지못하고 황성수
씨만 참석하여 화기가 가득한
가운데 조국의 사정과 특히
교회형편을 듣게되고 일본교포
의 사정에 대하여 희망하는바
를 서로 교환하여 과거에 맛
보지 못한 즐겁고 감있는 시
간을 보내게 되었다.
우선 황성수씨는 교역자들의
요청에 따라 본국의 정치적
정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여러분이 공금하는 본국의
최근사정은 말할수있으나 통일
에 대한 예언을 하기는 어렵
다 그러나 나는 이번에는 필
줄 믿는다 세계 민주진영 나
라전부가 오로지 한국의 통일
에 노력하기로 힘을 집중하고
있으며 유엔에서 본래 계획했
든 총선거가 그때에는 실패하
였으니 이번에는 그 체면과
책임상 그것을 실행에 옮길것
이다 물론 공산측이 반대하겠
지만 그때에 가서는 힘의
문제로 유엔이 원자탄 수조만
등의 힘을 보이고 그냥 순종
하든지 매를 맞고 순종하든지
하라고 한다면 한국하나때문에
그렇게 큰 매를 맞을 필요가
없을터이니 결국 양보할것이다
웃는 말이나 북한동포가 북한
피괴정권에 대하여 푸대타를
하고 돌아서면 그것이 가장

은 아시었는지 지금으로부터
二十六年前인 一九二七년에 한
국에서 宣敎하는 카나다長老敎
宣敎師를 日本에오게하여 오늘
날까지 우리들을 원조하게하였
고 四十餘個所나되는 敎會와 伝
道所를 設立케한것이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年數로보아도 四十
이 넘었고 敎會數로 보아도
四十이 넘었으며 敎人數로 보
아도 正敎人만이 千餘名이되어
진 오늘날 아직도 여러아이처
럼 우리敎會自體가 自立獨步를
하지못한다면 하나남앞에 너무
도 죄송할뿐 아니라 어느면까
지 남에게 거저 얻기만하고
남에게 주는자가 되지못하는
것을

민한 일일것이다. 그리고 미국에서 이제 무척 보다 경제공세를 취할텐데 또 련에서는 경제적으로 착한을 도울 힘이 없으니 요는 경제원조를 어떻게 효과있게 실속있게 쓰 느냐 하는것이 문제다 결국은 신앙문제와 양심문제로 돌아간 다.	우리 민족의 희망을 무르신 다면 역시 나는 교회에 갈하 겠다 이리니 저러니 해도 교회 밖에 있다 사본중에도 그 큰 난중에 교회가 그처럼 많이 신설되고 크게 발전되것을 보 면 과연 놀라운 일이다 그리 고 그 다음에는 청년들에게	있다 내가 지도하는 기독교인 자」에 꼭꼭 속박하는 내학생 이 二四大명이 되는데 그들은 다 열일。 신앙을 구하고 나 라에 몸을 바치려는 사 람들이 다 각지방을 순행해보면 각기 회에 진리와 빛을 구하는 남 다 청년들이 가득가득 모여서 열심으로 내 말을 듣고 회개와 나락을 위하여 몸을 바치겠다 고 영감하고 나서는것을 보면 과연 희망이 밝은지 보이는것 을 알수있다 한가지 유감은 청년 지도자가 없는것이오 그 들에게 정신의 양식으로 공급 할 서적이 없는것이다. 앞으로 문서 출판과 문서전도에 노력할
---	---	---

還都了完了復興의氣勢는 높아

다 하여 열열히 이며 각자가 最大의力量을 다 하고 신앙의 열정을 쏟아 흐	대한 Y M C A 연합회 대리총 무 김치영목사는 일복 Y M C A 동맹주최의 통회합원 五十주년 기념식에 한국 Y 연합회를 대표 하여 참석하기 위하여 지난 八 月十七일에 부산을 떠나 노스 웨스트햄으로 당지에 도착하였 는데 휴전후의 본국의 형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휴전후의 본국의 형편은 매 우 평온하다 벌써 정부각기관 은 거이 다 서울로 올라가서 한도가 되었다 국교회 이제 부 터는 서로서 모이게되었고 각	대학도 구월안으로 다 올라가 서 추기대학은 서울에서 하계도 있다 아직 부산에도 노동자나 국제시장에서 장사하는 이들은 그냥 있어서 사람이 많이 있 으나 정보다는 썩 줄어들어서 웬만한 중요한 자리에있는 사 람은 만나볼수없는 형편이오 따라서 다방들은 쓸쓸해지고 부산역에는 날마다 피난민으로 서울방면으로 올라가려는 사람 들이 장사진을 이루어서 자기 있으면서 차표 타기를 기다리 고있다 대사관은 아직 이동하 지 아니했는데 구월중순에는 서 울로 갈 모양이오 대사관이 가게되면 수병비행장도 따라서 움직여 될것이다。
--	--	---

朴博士長總神學校長就任

한일 自立運動基金을 모전하려
는 우리의 目的이며 趣旨이다
一九五三年八月十五日
在日大韓基督敎會總會
自立運動基金募集委員
趙기善 李宗憲
吳允台 金德成
田水福 金錫珪
曹畢律 吳錫宗
朴命俊 安榮俊

지난四月 第三十八回 장로회
총회에서 특수한 사정으로 서
교사 감부열박사를 총회신학교
교장으로 위대하여 지금까지
시무해왔으나 지난 八月五日
신학교실행리사회에서 감박사는
사의를 표하고 박형룡교수를
교장으로 위천하여 다음날인
六日 전체이사회에서 만장일치
가결되어 박박사는 이를 수락
하여 곧 취임하게 되었다 세교자

小倉敎會夏期學校

서 불수있는 자유로운 노동을
함은 불수가 없다.
예를 들어 말하면
자유로히 직장을 떠나는
노동자는 그의 집을 내게 하는
동시에 투옥되어진다.

2. 노련의 모든 노동자들은
직장에 늦게나오면 일일이 기
록하게되어있는 노동수첩을가지
고 있으며 언제나 규율을 범
하면 곧 기록되게 되어있는것
이다.

또한 그들은 서로 상대방
의 행위행동을 엿보고있는것이
다 그들은 스트라이키를 할
권리가 없는것이다. 공장에서
일하고있는 노동자들에
여러가지 많은 가난한 노동자
들에게 선전하는데 지나지않으
며 그리하여 그들은하여금
들에게 억지로 부과되어진

(三面八段에 계속)

原子力보다偉大한 福音의 힘

編輯人

정기학 발견자로 유명한 「마
이클 후라디」는 一七九一年에
영국에서 난 사람이요. 아버지
는 가난한 철공인이었으나 일
음이 독실한 신자였다.
그는 그 아버지의 신앙을
계승하였고 어려서 병과 가난
을 이기고 열심으로 공부하여
종교한 과학자가 되었다.
그의 저술한 「화학 물질」
이라는 책을 보면 그 서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으신
모든 것을 창조하신 것에
그와 동시에 이상한 힘도 지
으셨다」고 하였다.
이 세상에는 여러가지 힘이
있다. 사람에게서는 정신력, 지력,
체력 같은 것이 있어서 여러가
지로 활동할 수 있다.
후라디는 그 책에 말하기
를 「여러분은 태양에서十八
억 마일이나 멀리 떨어져서
살고있는 천왕성(天王星)이라
는 유성(星)이 있는줄을 알
것이다. 그런데 그보다도 더멀
리三十억마일 밖에도 한 유
성이 있고 거기에도 역시 인
력관 만유인력(萬有引力)이

작용하는 것이다. 이 별은
태양성(太陽星)은 이렇게 큰
정히 멀리 있는 별도 인력이
있기 때문에 그 효과를 볼 수
있고 과학자들이 발견한 것이다
여러분은 이 인력의 법칙을
잘 알아 두시고 곧 두개
물체는 그 거리의 역이승(二
乗)에 비례한 힘으로 서로
끌고 있는 것이다.
모든 유성이 질서있게 제
길을 따라서 운행하고 있는것은
인력이 있기 때문이다. 만일
이 인력이 없었더라면 이
우주와 세계는 어찌 되었을가
이 인력을 만들어 내신 하나
님의 위대하심은 이로 헤아릴
수 없는 일이다.
요새는 원자력이 문제가 되어
광장히 떠돌고 있거니와 그것
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힘이니
그 힘이 사람의 행동을 위하
여 쓰여지기를 바란다.
이 우주를 구성한 모든 원
소와 힘이 하나님께서 창조하
심으로 된것이라는 것을 생각
할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엄
숙한 태도로 옷깃을 바로하고

고개를 숙이게 된다.
이 세상에 이러한 이상한 힘
이 있다는 것은 과학자의 발
견으로 알 수 있으나 그보다
더 놀라운 힘이 또 있다. 이
원자력이 아무리 위대하지만
사람의 마음을 변화하여 국
際적인 사랑의 영혼을 고칠
수 없다. 곧 사람을 죄에서
구원할 힘은 없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사람을 새로 나게 하
시니 영생과 인격이 주어져
아도 소용없는 사랑을 경험시

켜서 새 사람을 만드는 힘은
세상에 어떠한 힘 보다도
귀하고 위대한 힘이요 인생의
정된 복음이다. 이 놀라운
힘을 경험한 사도 바울은 말
하기를 「나는 복음을 부끄러
워하지 아니하나 이 복음은
모든 믿는자에게 구원을 주시
는 하나님의 능력(力)이 된
이라」 하였다.
어떤 사람이나 아무리 완악
한 자나 어떤 죄인이든 예수
를 믿음으로 죄에서 구원을
얻고 「복음은 하나님의 힘이

나타난 것이다.
옛날 예수 당시에 유대 국
회의원으로 삼한 학식이 있고
도독하고 하는 사사(士)인
고대모 라는 사람에게 예수께서
는 다시 나기를 권하였다.
세상적 법에서 국가의 죄
인이 아니라도 도덕적으로 죄
인이요 하나님 앞에 죄인인
사람이 얼마든지 많이 있다.
심령으로 죽고 인격적으로 불
완전한 사람을 완전히 하시는
힘은 예수와 복음의 힘이다.

每年千五百萬部出版 販賣되는冊

문화가 발달됨을 따라 여러
가지 서적이 많이 나오고 그
중에 인기가 높아서 상당히
많이 출판되는 책도 있다. 한 번
출판해서 몇십만 부 혹은 몇
백만부씩 팔리는 소설책같은 것
도 있다. 그리고 그 나라에서
뿐만 아니라 몇나라 외국말로
번역되어 읽혀지는 책도 가끔
있다.
그러나 이 가장 인기있고
가장 많은 사람이 애독한다는
책도 그 당대뿐이오 그 시대

가 지나가면 독은 책이 되고
세상에서 버림을 받는 것이다
그리고 한동안 몇나라사람 어
떤 계급 사람만이 읽을뿐이다
그러나 여기에 역사이래에
가장 출판과 판매부수가 많고
가장 그 수명이 길고 어떤 나
라 사람이나 어떤 계급사람이나
유식한이나 무식한이나 모든
사람이 애독하는 책이었으니
그것은 곧 「바이블」이다. 곧
성경이다. 성경은 현재 세계
각국 각속속으로 번역되기를

한 수 있고 다시 종교적으로 말
하면 前者는 「肉의나」요 後者
는 「靈의나」라고 할수 있다. 여
기에는 결국 現實과 理想과 肉
의 몸에서 건져내려
한 사람으로서 善을 願하며
서도 그 善하는 善을 行치
하게 된것은 確實이 그 사
인 하나인 아니는 물론 眞理
것을 알수 있다. 여기에 「속사
이라 「마음의 법」이라 한
것은 「理想我」 「靈의나」를
하는 것이요 「다른 법」이라 「眞
인인 하나인 아니는 물론 眞理
것을 알수 있다. 여기에 「속사
이라 「마음의 법」이라 한
것은 「理想我」 「靈의나」를
하는 것이요 「다른 법」이라 「眞

科學文明의運命

田榮澤

소크라테스가 「나의 자신을
알라」 한 말을 너무나有名
한 말이지만은 또한 모든時代
모든 사람에게 큰警告를 주는
善言性이 있는 것이다.
이제 사람이 나自身을 卒直
하게 嚴肅하게 觀察할면 아
무리 보고 또 보아도 그것이
平實한 存在-完全한것이라고
할수는 없다.
결론 現代人은 人自體도
自然인으로서 그 美를 審美한
다. 女性美, 或은 男性美, 或은
「사람」을 審美한다. 그러나
그런 皮相의 面에서 말고 속
사람인 나를보고 생각할때에
「나」라는것이 如何하게

나로서의 存在를 한다 나의
모습이 과연 아름답고 完全하
나 第三者의 立場에서 冷靜하
게보고 判斷한다면 나는 나
도 어리석다고 할수있고 어
떤때는 不具者라고도 하고 어떤
때는 미친것같기도하고 또 어떤
때는 惡魔와같이 보이는것이
그 숨길수없는 모습이다.
사람은 한개獨立한 人格으로
責任있고 責任한 存在라야할터
인데 사실에있어서 나 스스로
를 監視할때에 제가 스스로
統一性과 統制力이 없어서 제
가 스스로 제마음대로 못하고
자기의 한일에 대하여 責任을
지지 못하며 따라서 사람답지
못한 모습을 보이는 나를 「理想我」라고

할수있고 다시 종교적으로 말
하면 前者는 「肉의나」요 後者
는 「靈의나」라고 할수 있다. 여
기에는 결국 現實과 理想과 肉
의 몸에서 건져내려
한 사람으로서 善을 願하며
서도 그 善하는 善을 行치
하게 된것은 確實이 그 사
인 하나인 아니는 물론 眞理
것을 알수 있다. 여기에 「속사
이라 「마음의 법」이라 한
것은 「理想我」 「靈의나」를
하는 것이요 「다른 법」이라 「眞

나를 사로잡아 오는것을 보
도가 오오라 나는 피로운 사
인인 하나인 아니는 물론 眞理
것을 알수 있다. 여기에 「속사
이라 「마음의 법」이라 한
것은 「理想我」 「靈의나」를
하는 것이요 「다른 법」이라 「眞
인인 하나인 아니는 물론 眞理
것을 알수 있다. 여기에 「속사
이라 「마음의 법」이라 한
것은 「理想我」 「靈의나」를
하는 것이요 「다른 법」이라 「眞

香氣

무서운 罪

이태리 나라에 뱀을 부리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언제나 큰 구렁이가 마음대로 제물에 감작다가 차차 물리는 무시무시한 노릇을 하였다. 아무리 해도 그것은 위험한 일이고로 그만 두라고 친구들은 구지말라. 그러나 그 사람은 전혀 히 「아니 걱정없어 뱀은 길 이 잘들었어 어찌 순한지 내 게는 고양새끼 같은걸」 하군 하 하였다.

그러나 어느날 밤 여전히 뱀을 제물에 감작게 했는데

아니 뱀이 갑자기 많은 사람을 통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사망하고 성심으로 읽었는데 지 지랄할수 없는일이야. 성경은 인생의 어두운 골짜기 험한 길을 가며 해매는 사람에게 광명이 되고 희망이 되고 고난의 거친 물결을 가는 자에게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되는것이 다 성경은 사람이 사함된 도리를 알고 또 그것을 행할 수 있을 줄을 주는 책이다 우리의 위대한 지도자 안창호선생은 한 국사람 삼천만이 저마다 그 소에 신약전서를 가지는 날에

반지를 목반에 내놓아바쳤다. 그때에 한 소년은 그 목반을 제게로 달라고 하였다. 그래서 그 연보를 거두는 집사는 이상한 얼굴로 목반을 내주었다 니 그 소년은 그 목반위에 올라섰다.

그것을 본 목사는 그 소년을 불러서 그 까닭을 물은즉 그 소년은 「저는 아무리카 전도를 위하여 아무것도 바칠 것이 없으니 제 몸을 바칩니다」 하였다.

이 소년이 바루 아무리카 전도를 위하여 평생을 바친 유명한 아무리카 선교사 리빙 스톤씨이다.

아찔했어 공헌하기를 바라는 바이다. 더욱히 일본에서 애써 공부하는 청년학도들을 도울 일이다. 이 일이 미래의 건설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일이기 때문이다.

(二面九段에서 계속)

태평양에 있는 관동하지 못 한 법칙과 통치에 북송하게 하는데 불과하다. 미국의 공장에서 일하고있는 노동자들은 그들 자신들이 공장들 소유하고 있지않다는것을 잘 알고있고 또한 그들은 자기들 의욕에 따라 노동하고있다는것도 잘 알고있다.

결국으로 그들은 그들이 받는 임금에 대하여 자유로히 발언할수있으며, 언제 또는 어느 곳에서든 노동법시간에 위반되지않고 일할수있는 자유로운 발언권을 가지고있다.

아 우리민족도 희망이 있으리라 고 일이었다.

한번은 엘리사벳여왕 옥심년 환갑축하식에 인도지경 어떤 왕이 「당신 나라는 어찌하여 이렇게 훌륭하고 부강하였느냐 물어보지」 여왕은 말없이 자기

옆에있는 성경전서를 들어보였다고 한다.

바라건대 독자도 이 성경을 읽어서 개인으로나 민족으로 큰 은혜와 유익을 받기를 간절히 축원한다.

낙동강은 멀리 강원도 땅인 태白山에서 시작하여 경상남북도 의 물결을 모으면서 馬山 근처에서 바다에 드러가는 큰 강의 유역(流域)의 넓이는 한국에서는 제1위에 불리우리 만을하다 그런고로 자기(自古)로 이 강의治水방법은 언제나 큰 문제였던것이다. 이 강이 경상남도에 드러가서는 그



姜元龍牧師

姜元龍牧師渡加

NCC에서 靑年學生運動을 맡아 지난 五年동안 활동하는姜元龍목사는 이번 캐나다 기독교학생연맹초청을 받아 캐나다로 가는 도중 八月四日「하네다」에 도착하여 당지에 수일을 묵고 지난十一日 靑島기점으로 캐나다로(渡加)가는데 캐나다에 가면 마니토바大學에서 신학을 연구하면서 캐나다의 기독교학생연맹을 주로 시찰연구하고 세계교회연합운동(世界教會聯合運動)에 대한 연구를하고 二년후에 귀국할 예정이라하며 씨는 출발에 제하여 요지다음과같은 소감을 말하였다.

우리나라는 지금 유사이래 최대의 시련에 처하여 있고 우리의 민족은 극난한 곤경에 빠져 헤매고 있다. 그러

나 그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싸워하게 이러나는 무리가 있다 그것은 청년 남녀학생들이다.

재일동포들은 조국과 멀리 아니한 지점에서 이들이 조국과 교회들 위하여 헌차게 장성하도록 물질 양면으로

낙東江(河口)

이 강이 천천히 흐르고 강변이와 砂坪도 넓니 버터 풍광도 또한 평지 많은 南韓다운이 있고 명쾌한 기분을 제용도 있으나 한번 이강이 홍수로 범람하여 집들의 창고는 말로 다 할바없다 이江水가 드러가는 바다로 그때에는 수마일 멀리까지 향도해 흐르물에 화하는 것이다.





田榮澤作

「그런데 사람을 죽이기는 왜
죽일까요? 의모를 왜 죽였을까
명예와 명예에 머니는 잠시 침
잠한 침묵에 묻히고 세 사람은
말이 없었으나 명예의 영광은
마음으로 터져나오는 이말에
K형님은 비로소 어떤 중대한
사실을 이야기할것을 잊어버렸
다는듯이 고개를 번쩍 들면서
다시 이야기할 계속한다
「그놈들도 마리아선생의 인격
을 알았든 모았이지오 인격도
알고 고통중에 있고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
하시는 그 정신을 알아본 모
양이지오 그래서 자기네 사
랑을 가지고 자기네편 사람이
될 가능성이 너무나 컸는줄
알았든지 처음에는 많이 권하
구 달렸대요
담신 같은 이는 이제
우리 인민군의 최후승리가 될
아오는 날에 우리 여성계의
큰 지도자가 될분입니다 여성
분 아니라 전 인민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실터이니 어서 마
음을 돌이키시오 자 우선 그
이름부터 고집시다 그 자본주
의 침략자의 냄새라고 인민의
정신을 마취시키는 야면냄새
나고 그 케케묵고 고리타분한
아소프냄새나는 이름을 고치고
그리구 이제부터 우리 위대한
신 스탈린 대원수를 숭배하고
그분의 가르치신 진리를 받아
가지고 인민을 가르치고 지도
하는 책임을 지시고 그리구
앞으로 여러 불행한 인민대중
을 보호하시는 위대한 사업을
하시면 얼마나 좋으십니까
그것은 정부에서 얼마든지 허
락하고 뒤를 덮어줍니다 이것
이 마리아씨의 가장 적임이실
것입니다 이제 당신이 이승만
도당이 인민의 적인것과 아소
프를 버리겠다는 약속을하고
영성을하면 이제라도 곧 석방
됩니다 내 말 한마디면 됩니다
다」그런데 마리아선생은 그
정보대장의 이런 말이 끝나기
도전에 소리를 질러서 호령을
했답니다
「예수님을 버리다니 무슨 말
을 그르냐 말문을 하시오 이
승만보라도 당신네 김일성이
인민의 원수요 인민의 재산
강제로 뺏겼고 무죄한 사람을
함부로 죽이구... 어서 나를
죽여주시오 내가 어찌 내 목
숨이 살겠다구 내 주님을 배
반한다말이오」
하지만 두말하지 않고 끌고
들어가서 막 때리고 입에 담
을수없는 욕설을 퍼붓고 가진
악형과 고문을 했답니다 마리아
선생은 여러번 기절을 하며
서도 가끔 얼굴에 미소를 띄
우고 끝까지 굴하지아니했습니
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위해
서 회개시켜 달라고 기도를
하셨답니다
「그네들은 다시 마리아선생을
조용히 청해놓고 위로하려고
여러말로 유혹을 해보았으나
마리아선생은 잔말하고 어서
죽여달라고 호령을 하기때문에
그놈들은 막 화가나서 옷을
벗겨가지고 때렸답니다 그래도
마리아선생은 조금도 동하지않
고 끝까지 신앙과 절조를 지
켰답니다」
K형님의 이말에 명예와
부인과 말한 사람까지 울고
그중에도 명예는 몹시 오래
오래 울고「나는 이모의 신앙
과 정신을 받아서 살고 그
뒤를 이어서 일을 하리라」
명예는 마음속에 이렇게 깊
이 결심하였던것이다 두사람
은 K형님이 전하는 이야기들
생각하고 더구나 하나밖에없는
말「예은」이 일일 생각하고
또 그밖에도 뽀얀이한테 당했
다는 참혹한 소문을 생각하고
잔을 이루지 못하였다
☆ ☆ ☆

炎夏에平安하심을?
暑中御見舞

鍋横モナミ

店主 金養坤

東京都中野區本町通り四ノ三六

貿易商

株式會社 天友社

社長 全澤瑤

本社 大韓民國釜山光復洞一街四二
東京事務所 電話四八四八・三四一〇
東京千代田区丸ノ内一丁目
ホテル東京三二三三號室
電話四四二一・四四二九・內線五五八
(五五八・二七七二) (東京)

西陣織有線無線ビロート
(四本ベルベツト)

韓服 치마감其他

生産都賣販賣 岩本工場

經營主 李鐘洵

京都市上京區大宮通蘆山寺上ル
西入社横町288 電話西陣(4)5852番